



SBS 수목드라마 '시크릿 뷰티크' 지역 기업 '아로마라이프' 제작 지원



김선아

SBS 수목드라마 '시크릿 뷰티크'가 지난 18일 밤 10시 방영을 시작했다.

아로마라이프가 제작지원하는 이 드라마는 재벌기업 데오 가(家)의 총수 자리와 국제도시 개발 게이트를 둘러싼 여성들의 파워 게임을 다룬다. 목욕탕 세신사에서 재벌가 하녀로, 정재계 비선실세로 거듭난 제니장(김선아)이 국제도시개발이란 황금알을 손에 쥐고 재벌그룹 데오 가 여제 자리를 노리면서 벌이는 삼리전에 스틸러시 반전과 압투를 더했다.

'여인의 향기'에서 호흡을 맞춘 박형기 감독과 김선아가 8년 만에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김선아는 데오 그룹 총수인 '욕망의 화신' 김여옥 역의 장미희와 숨막히는 호흡을 선보인다. 어머니 김여옥으로부터 늘 제니장과 비교당하며 살아와 자각지심을 느끼는 인물 데오 가 장녀 위예남을 연기하는 박희본과의 호흡도 관전 포인트다.

이밖에 고민사·김재영·김태훈·류승수·김법래·류원·장영남 등이 출연한다. 극본은 '인생 추적자 이재구'의 허선희 작가가 맡았다.

박 감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작품은 남성의 욕망을 주로 다루는 다른 작품과 달리 여성이 사건을 끌여가는 주체로 등장해 '레이디스 누아르'라는 장르명을 붙였다"며 "4K 아닌 8K 카메라로 촬영해 미술·영상 면에서도 차별 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드라마 제작 지원을 맡은 아로마라이프는 원적 외선 기능성 속옷, 보정 속옷 전문 브랜드다. 올해로 창립 12년째를 맞은 아로마라이프는 3단 일체형 속옷 '아모리온' 등 제품을 주력으로 한·중·미·일 4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한민국 공간경연대상'을 받는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후원과 봉사활동, 선교활동도 펼치고 있다. 오늘 밤 10시 방송.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훈과 함께 동네 책방으로... EBS '발견의 기쁨'

내일부터 전국 책방 여행

EBS 1TV는 26일부터 책방 여행기를 테마로 한 '발견의 기쁨, 동네 책방' (사진)을 방송한다고 24일 예고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전국 곳곳에 자리 잡은 다양한 동네 책방들을 찾아가 책에 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26일 밤 11시 35분 첫 방송에서는 작가 김훈이 책동무이자 작가인 백영욱과 함께 63년 된 속초의 오랜 책방 '동아서점'을 둘러본다.

두 사람은 동아서점에 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속초의 역사가 된 동아서점 이야기, 그리고 문학관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특히 김 작가는 30여 명의 독자와 함께 강원도를 대표하는 서정시인 고(故) 이상선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작가는 젊은 시절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에 대해 노래한 이성선 시인의 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김 작가는 또 차기작에 대해 "인간의 야만성과 악에 저항하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생은 세 작품만 더 하고 끝낼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KBS 예능 '안녕하세요' 30일 시즌1 종료

"종영 아닌 리뉴얼... 다시 만날 것"

KBS 2TV 예능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이하 '안녕하세요')가 시즌 종영 후 재정보 시단을 갖는다.

'안녕하세요' 제작진은 24일 "오는 30일 431회로 시즌1이 종료된다"며 "하지만 새로워진 시즌2로 시청자들과 꼭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시작해 10년 가까이 월요일 밤을 지킨 장수 프로그램 '안녕하세요'는 그동안 1553명의 출연자가 출연해 시청자 평정단, 연예인 출연진과 각양각색의 고민을 나눴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 한국방송대상 예능부라이더티 부문 작품상, 2019년 한국방송비평협회가 선정한 한국방송비평상 예능부문 등을 받기도 했다. 또 2012년 신동엽, 2012년 이영자까지 KBS 연예대상 수상자도 2명 배출했다.

시청률 역시 지난해 평균 4.9%(닐슨코리아)에서 올해 5.2%로 상승세를 보였다.

제작진은 시즌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해 "자연 수급의 한계성을 고려했고, 더 진정성 있고 깊이 있



는 고민 해결을 위한 새로운 포맷과 대대적인 리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덕덕 365 35 수성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신입사관 구해령(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실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동백꽃 필 무렵(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키티트 유니버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신입사관 구해령(재)	00 SBS 12 뉴스 50 남북의 창 50 시크릿 뷰티크(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KBS 재난방송센터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키티트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 10 남북의 창 50 전국노래자랑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에어로비 50 빠샤 메가드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쉼! 내 친구는 빅파이브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차종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나디Q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05 집중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신입사관 구해령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더 라이브	00 동백꽃 필 무렵	05 특별기획 농업이 미래다 <신한류, K-Fresh>	00 시크릿 뷰티크
[11]	35 UHD 숨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썸바이벌 1+1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EBS 초대석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크프라이미	19:00 스파이더맨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55 EBS 초대석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똥덩어리 유치원	14:45 몰랑	20:00 TV로 보는 원작동화
08:30 띠띠뽀 띠띠뽀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아시아 강촌 기행 -같이 품은 사람들 중국>
09:00 출동! 슈퍼왕스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1:30 한국기행
09:30 원더볼즈	15:55 출동! 슈퍼왕스(재)	<굴러굴러 가다 보면 3부 그 사랑 참 오지다>
09:40 아기 동물 귀여워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크프라이미
10:00 지식의 기쁨	16:25 마사와 곰(재)	22:45 극한직업
10:30 한국기행(재)	16:40 똥덩어리 유치원(재)	23:35 EBS 초대석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4:25 지식의 기쁨(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그(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5일 (음 8월 27일 乙丑)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투철한 사명감과 확실한 소신으로 임해야 한다. 48년생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느니라. 60년생 실리는 적고 할 일은 많으니 수고스러울 것이다. 72년생 취약한 점이 보인다면 즉시 보완해야만 한다. 84년생 값어치를 따져서 판단할 일이다. 96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행운의 숫자 : 01, 16</p>	<p>午</p> <p>30년생 작심한 바와 행동이 시종일관 일치해야 성취하리라. 42년생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겠다. 54년생 짐작하게 임하라. 66년생 지난날의 부실함을 만회하게 되는 때가 있다. 78년생 애초에 마음먹었던 바를 펼친다면 뜻을 이루리라. 90년생 범위를 벗어나면 서로가 곤란해진다 것을 잊지 말라. 행운의 숫자 : 68, 43</p>
<p>丑</p> <p>37년생 중요한 것을 다루게 될 것이니 실수 없어야겠다. 49년생 짐작을 떨쳐버려야 큰일을 도모할 수 있다. 61년생 발효되는 작용과도 같은 이치이니라. 73년생 어려움은 경험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85년생 일관성 있는 꾸준함이 요구되는 때이다. 97년생 어려워 보여도 막상 실행한다면 가볍게 해결되리라. 행운의 숫자 : 49, 76</p>	<p>未</p> <p>31년생 포용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리가 없으리라. 43년생 안정세를 취하면서 견고해지겠다. 55년생 절실한 동태이니 적극적으로 응해 줘야 한다. 67년생 이익이 따르느니라. 79년생 새가 깃을 치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형상이다. 91년생 의미 있는 일을 접하는 영귀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8, 72</p>
<p>寅</p> <p>38년생 유명무실한 것에는 미련을 둘 만한 명분이 서지 않는다. 50년생 객관적 실상에 주목하여야 한다. 62년생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낫다. 74년생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니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 86년생 필요로 했던 것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8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자. 행운의 숫자 : 63, 44</p>	<p>卯</p> <p>32년생 생산성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44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이루고야 말리라. 56년생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함이 유리하다. 68년생 사소하다고 여겨왔던 일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80년생 아직은 활발하나 갑자기 중단 될 수도 있다. 92년생 발전을 위한 비란은 활력소가 되는 법이니 대세에 순응하는 것이 복을 부른다. 행운의 숫자 : 11, 27</p>
<p>辰</p> <p>39년생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취하라. 51년생 상대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느니라. 63년생 이치에 맞지 않으면 속히 거부어들이는 것이 백 번 낫다. 75년생 길조가 깃드는 판세이니라. 87년생 지지 기반이 튼튼해질 것이다. 99년생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겠다. 행운의 숫자 : 18, 59</p>	<p>巳</p> <p>33년생 뜻밖의 일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45년생 일단 애봉을 피한 다음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니라. 57년생 경제성이 있느냐 아니냐 비효율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69년생 소용없는 일이니 내버려 두라. 81년생 모든 것을 차치하고 새롭게 시작함이 유익하다. 93년생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05</p>
<p>巳</p> <p>40년생 안금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52년생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때다. 64년생 중간에 한번의 위기만 잘 넘긴다면 뜻을 이루리라. 76년생 간절하다면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88년생 어차피 상대적이지 어 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대응이 달라진다. 00년생 갈구해 왔던 바가 실현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1, 55</p>	<p>午</p> <p>34년생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46년생 곤혹스러운 부탁을 받거나 거절할 수 없는 처지가 되리라. 58년생 해는 없으리라고 보니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 70년생 굳이 앞서갈 필요 없으니 서두르지 말라. 82년생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시끄러워진다. 94년생 열린 시각으로 살펴 제대로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4, 46</p>
<p>未</p> <p>41년생 기가 막힐 일이 생긴다. 53년생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법에 따른 차이가 크다. 65년생 시선 집중을 받을 수도 있다. 77년생 불완전하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 89년생 제반사가 같하니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자. 01년생 자기 주관이 있어야만 휘둘리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32, 34</p>	<p>未</p> <p>35년생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47년생 노력하지 않는다면 밀릴 수밖에 없다. 59년생 자연스러움이 합리적으로 작용하리라. 71년생 애써 시도 한다 하더라도 함께 부딪치게 되리라. 83년생 지켜보고 있으면 함께가 드러날 것이다. 95년생 전체적인 국면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고찰하자. 행운의 숫자 : 17, 32</p>